

# 文대통령 “남북관계 대전환 이뤄야”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장 수여식서... 김덕룡 수석부의장 “통일 국민 대장전” 같은 선언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고, 민주평통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총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평통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국민 합의를 모으는 중요한 헌법기구이지만,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막막함에 따라 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덕룡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각 위원장 배우자들에게는 축하의 꽃다발을 건넸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은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과 조지를 잘 추슬러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관계 개선에 일조하겠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 우리 국민의 합의가 중요하단데 진보·보수를 뛰어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 원칙을 만들기 위해 ‘통일 국민 대장전’ 같은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임명장 수여자들에게도 차례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대화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라며 “그동안 파행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우선 대화부터 복원하고 노동 존중의 비전을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살려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남·북·러 간의 삼각협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처음 만든 위원회”라며 “동북아시아 북방경제의 새 지평을 여는 일은 통일의 지름길이기도 하므로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서는 “우선 현 헌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 이루어질 개헌안

에 지방분권 정신을 중요한 과제로 담아 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를 살려내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 문제를 풀어나가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낼 터이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송영길 위원장은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틀과구를 마련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러 3각 협력은 그 그대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우선 한국과 러시아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의 가치가 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과 인력의 배분에서 균형의 가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 ‘근로시간 단축’, 8월 임시국회 통과 어려울 듯

8월 임시국회에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단축(68→62시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위원회와 열고 전날 잠정 합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 직주 기자들과 만나 “8월31일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어제 얘기하고 다르게 여당이 여당안을 바로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어제 합의안 입장이 달라졌다고 (불 수백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5~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1~2·3년, 1~3·5년 단계를 놓고 이견이 엇갈린 상태다.

아울러 야당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과를 받기 전에 빨리 여당안을 받으라고 해서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은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여당안을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하자고 한 것도 아니다”며 “속도감 있게 하자고 한 것이다. 정부도 빨리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처음부터 어려웠다”며 “근로시간 특별법정 정리 부분은 여야가 가합의 상태로 정리한 것이 있는 만큼 그것부터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추미애, 티모닌 러시아 대사 예방... ‘러, 北 핵 반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모닌 대사와 만나 “지난 정부에서는 두 나라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나진한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 양국관계의 실질적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특사 파견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동북아 평화안 등 여러 외교현안들을 양국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댄다면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다음달 예정된 한러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간 관계가 새정부 들어서 전향적이고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티모닌 대사는 다음달 한러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 합부르크 G20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지난 4개월 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한반도에서 양국의 주요 목적이 일치하거나 비숙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과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미사일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의 공통입장은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서도 표현됐다”고도 강조했다. /뉴시스

## 4대강 보 추가 개방... 가뭄·침수 예방대책 마련

환경부가 가뭄과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4대강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나머지 10개보를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방해 녹조 저감에 나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수질·수량관리, 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환경부는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해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 등 8개시·군에 대해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하루 4만 5000t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난 2015년 가을처럼 하루 평균 물부족량 3만t에 달하는 최악 가뭄 상황에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로 했다.

보령하수처리장 처리수 일일 1만t을 인근 보령화력에 공급용으로 공급하는 방안

도 추진한다.

반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 중이다.

올해 7월 청주에서 시간당 최대강우량 92mm로 침수피해 발생에 대해 하수도정비·불투수면적 저감, 하천제방정비,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 관리의 국민 신뢰 회복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 환경부 “통합관리 위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 중이며,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상수원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국민알리기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 확대한다.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하여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입법하기로 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